

브라질 본선행, 레바논 원정에 달렸다

한국, 카타르 꺾고 승점 10…A조 2위
남은 3경기 2승·1승2무 올려야 안심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를 꺾고 한승을 들렸지만 아직 브라질로 향하는 길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26일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함부르크)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손흥민 카드 적중=한국은 김신욱과 이근호, 이청용, 지동원 등을 중심으로 전반 내내 강한 공세를 펼쳐 카타르를 압도했으나 상대의 수비벽에 막혀 출렁거림을 보지 못했다.

경기를 지배하고도 빈손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들어 지동원 대신 이동국(전북)을 투입, 분위기 바꾸면서 한층 더 공격의 날을 세웠고 후반 15분 고대하던 선제골이 터졌다. 박원재가 왼쪽 측면 외곽에서 전방으로 옮긴 패스를 정면에 있던 이근호가 절묘한 백해딩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근호의 머리를 때난 공은 상대 골키퍼 키를 넘겨 골망을 훤히 들었다.

그러나 선제골로 달아오른 분위기

는 오래가지 않았다. 후반 18분 상대 역습 상황에서 칼판 이브라히미 페널티 밖에서 때린 과감한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한국 골대에 향했다.

최강희 감독은 후반 36분 이근호 대신 손흥민을 끌어보내 승부수를 띄웠고 이 카드가 적중했다. 상대 선수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일족족 발 상황에서 이동국이 시도한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사실상의 마지막 공격 기회마저 무위에 그치는 듯하던 상황에서 정면에 힘을 빼고 있던 손흥민이 훌려나온 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밀어 넣었고 이 골이 이날 경기의 승부를 갔다.

◇승점 6점 조기 확보해야= 3승 1무 1패(승점 10)가 된 한국은 한 경기를 더 치른 우즈베키스탄(3승 2무 1패·승점 11)에 이어 A조 2위에 올랐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는 바로 본선에 진출한다.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한국이 카타르전에서 다행히 승점 3점을 따냈으나 아직 6월에만 3경기가 남은 데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중간순위

27일(한국시간) 현재

A조

순위	팀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우즈베키스탄	3	2	1	+2	11
2	한국	3	1	1	+6	10
3	이란	2	1	2	-0	7
4	카타르	2	1	3	-3	7
5	레바논	1	1	4	-5	4

한국팀 경기일정

1차전(원정): 2012.6.9 대 카타르전(1:4 승)
2차전(홈): 6.12 대 레바논전(3:0 승)
3차전(원정): 9.11 대 우즈베키스탄(2:2 무)
4차전(원정): 10.16 대 이란전(1:1 패)
5차전(홈): 2013.3.26 대 카타르전(2:1 승)
6차전(원정): 6.4 대 레바논전
7차전(홈): 6.11 대 우즈베키스탄전
8차전(홈): 6.18 대 이란전

연합뉴스

자료/FIFA

승점 3차로 쫓는 팀이 2개 팀이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6월 4일 레바논(원정), 11일 우즈베키스탄, 18일 이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는 바로 본선에 진출한다.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한국이 카타르전에서 다행히 승점 3점을 따냈으나 아직 6월에만 3경기가 남은 데다

그쳐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고양에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동 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레바논은 홈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진다면 같은 날 경기가 있는 이란이나 카타르에 승점에서 동률을 적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다.

이어 일주 뒤인 11월에는 현재 A조 선두인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A조 1, 2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성이 큰 경기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동국의 역전골로 2-1로 앞서갔으나 2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마지막 상대인 이란은 최종예선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공식 시달리며 3위로 처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해단에서 '최강희호'에 0-1로 빼앗긴 패배를 안긴 바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이란에 당한 것이다. 결국 까다로운 상대인 이란을 상대로 '본선 출전권'의 갈립길에 서지 않으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 승점 6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승점 3차로 쫓는 팀이 2개 팀이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6월 4일 레바논(원정), 11일 우즈베키스탄, 18일 이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는 바로 본선에 진출한다.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한국이 카타르전에서 다행히 승점 3점을 따냈으나 아직 6월에만 3경기가 남은 데다

그려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고양에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동 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레바논은 홈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진다면 같은 날 경기가 있는 이란이나 카타르에 승점에서 동률을 적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다.

이어 일주 뒤인 11월에는 현재 A조 선두인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A조 1, 2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성이 큰 경기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동국의 역전골로 2-1로 앞서갔으나 2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마지막 상대인 이란은 최종예선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공식 시달리며 3위로 처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해단에서 '최강희호'에 0-1로 빼앗긴 패배를 안긴 바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이란에 당한 것이다. 결국 까다로운 상대인 이란을 상대로 '본선 출전권'의 갈립길에 서지 않으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 승점 6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그려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고양에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동 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레바논은 홈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진다면 같은 날 경기가 있는 이란이나 카타르에 승점에서 동률을 적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다.

이어 일주 뒤인 11월에는 현재 A조 선두인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A조 1, 2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성이 큰 경기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동국의 역전골로 2-1로 앞서갔으나 2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마지막 상대인 이란은 최종예선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공식 시달리며 3위로 처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해단에서 '최강희호'에 0-1로 빼앗긴 패배를 안긴 바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이란에 당한 것이다. 결국 까다로운 상대인 이란을 상대로 '본선 출전권'의 갈립길에 서지 않으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 승점 6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그려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고양에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동 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레바논은 홈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진다면 같은 날 경기가 있는 이란이나 카타르에 승점에서 동률을 적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다.

이어 일주 뒤인 11월에는 현재 A조 선두인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A조 1, 2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성이 큰 경기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동국의 역전골로 2-1로 앞서갔으나 2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마지막 상대인 이란은 최종예선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공식 시달리며 3위로 처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해단에서 '최강희호'에 0-1로 빼앗긴 패배를 안긴 바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이란에 당한 것이다. 결국 까다로운 상대인 이란을 상대로 '본선 출전권'의 갈립길에 서지 않으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 승점 6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그려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고양에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동 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레바논은 홈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진다면 같은 날 경기가 있는 이란이나 카타르에 승점에서 동률을 적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다.

이어 일주 뒤인 11월에는 현재 A조 선두인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A조 1, 2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성이 큰 경기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동국의 역전골로 2-1로 앞서갔으나 2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마지막 상대인 이란은 최종예선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공식 시달리며 3위로 처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해단에서 '최강희호'에 0-1로 빼앗긴 패배를 안긴 바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이란에 당한 것이다. 결국 까다로운 상대인 이란을 상대로 '본선 출전권'의 갈립길에 서지 않으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 승점 6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그려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고양에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동 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레바논은 홈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진다면 같은 날 경기가 있는 이란이나 카타르에 승점에서 동률을 적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다.

이어 일주 뒤인 11월에는 현재 A조 선두인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A조 1, 2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성이 큰 경기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동국의 역전골로 2-1로 앞서갔으나 2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마지막 상대인 이란은 최종예선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공식 시달리며 3위로 처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해단에서 '최강희호'에 0-1로 빼앗긴 패배를 안긴 바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이란에 당한 것이다. 결국 까다로운 상대인 이란을 상대로 '본선 출전권'의 갈립길에 서지 않으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 승점 6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그려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고양에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동 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레바논은 홈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진다면 같은 날 경기가 있는 이란이나 카타르에 승점에서 동률을 적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다.

이어 일주 뒤인 11월에는 현재 A조 선두인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A조 1, 2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성이 큰 경기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동국의 역전골로 2-1로 앞서갔으나 2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마지막 상대인 이란은 최종예선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공식 시달리며 3위로 처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해단에서 '최강희호'에 0-1로 빼앗긴 패배를 안긴 바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가 이란에 당한 것이다. 결국 까다로운 상대인 이란을 상대로 '본선 출전권'의 갈립길에 서지 않으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 승점 6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그려 A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다.

</div